

축 사



김 관 진
(국방부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세미나를 마련하신 송영근 의원님과 김진욱 한국군사시설연구소 이사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귀빈과 전문가,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관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국방·군사시설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군사시설연구소 창립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서 지난 60년 동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져 오고 있는 냉전지대입니다.

이러한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행복’과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국방태세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시설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 창립되는 한국군사시설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단체로서, 국방시설 발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민편익’ 사이에서 상충되는 갈등과제에 대해서도 보다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2년 전부터 각 군의 시설관련조직을 통합하여 국방시설본부 및 지역 시설단을 창설 후 시설분야의 제반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또는 완화하고, 강원도에 민·군협력관을 파견하여 군 관련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탄약부대 주변 안전거리 조정과 군 공항 이전법 시행 등 국방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통해 민·군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국방 및 군사시설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건설하고, 국민편익도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민·군이 함께하는 오늘 세미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분은 선진화된 美 공병단의 구성과 역량을 참고하여 군 시설 조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민간 및 해외 등 외부와의 협력체계 형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국방시설본부 창설 2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군 시설 조직의 역량을 진단하고, 선진국의 조직과 비교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군 시설분야의 역량 강화는 ‘비전투분야 민간개방’이라는 국정과제 추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안팎으로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방·군사시설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도 많이 나오게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세미나를 마련하신 송영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